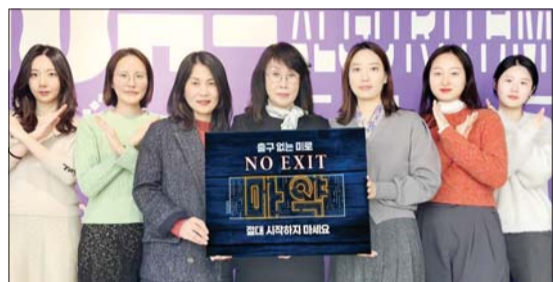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수산물 판매상황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오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을 방문해,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등 농수산물 판매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과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해옥 세화미술관 이사장,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태광그룹 세화미술관은 서해옥 이사장(왼쪽 네번째)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서 이사장은 세화예술문화재단 직원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광그룹



BBQ, 홍콩 학생·교사들에 K-푸드 우수성 전파

제너시스BBQ 그룹은 최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치킨대학에서 홍콩 세인트 조셉 칼리지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총 41명이 기업 탐방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들은 치킨대학 시설 투어를 시작으로 K-푸드의 우수성과 BBQ 치킨의 역사,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배울 수 있었다. 동시에 치킨을 조리하는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외식 산업 현장도 함께 체험했다. /제너시스BBQ



신한은행, 우즈베키스탄 해외봉사단 발대식

신한은행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봉사단은 신한은행 직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오른쪽)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이용무 병원장에게 해외의료봉사 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신한은행

한화오션

필립 레비 해양사업부장 임명 (前 SBM 오프쇼어 지사장)

한화오션이 해양사업의 전략적 변화를 위해 필립 레비(사진) 전 (前) SBM 오프쇼어(Offshore) 미국 지사장을 신임 해양사업부장으로 임명했다.



필립 레비 신임 해양사업부장은 25년 넘게 SBM 오프쇼어에 근무했다. SBM 오프쇼어가 세계 해양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필립 레비 신임 해양사업부장은 글로벌 해양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수많은 석유·가스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오션 해양사업부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연운열의 푸드톡톡

7080세대에게 자장면은 어린 시절 생일이나 졸업식날이 되어야 먹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이었다. 그들 부모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외식하는 날은 꿈만 같았다.

그들이 대학생이 될 즈음엔 '경양식집'이라고 부르던 곳이 번성했다. 미팅이라도 하는 날에는 하얀테이블보에 가지런히 놓인 포크와 나이프로 마주 앉은 미팅 상대에게 어색한 숨쉴을 애써 감춰가며 긴장한 채로 돈가스나 비프스테이크를 잘라야 했다.

경양식 시대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기업형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도입되자 시민들의 발걸음은 가족단위로 움직이게 됐

다. 지금은 사라진 국내 굴지의 백화점 유통기업인 미도파그룹이 미국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를 일본에서 벤치마킹해 서울 서초동에 직영1호 점포를 필로타입으로 연 것이 국내 기업형 외식 역사의 효시다.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던 중 미국의 전문 외식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고 센트럴킨친 전문설립 업체가 공사를 진행해 수도권 지역에 그야말로 최첨단 시설의 CK(센트럴킨친)을 준공했다.

지금의 공유주방 시스템, 온라인 마켓과 배달 플랫폼 세대인 MZ세대에게는 옛날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센트럴킨친은 그 당시만 해도 외식 업계는 물론 식품생산 전문기업조차 개념을 모르던 상황이 었기 때문에 초대 공장장이었던 필자가 그랜드 오픈하던 날 초대

받은 외식 업계에 몸담고 있던 산업체, 대학 외식조리학과 교수, 식재료 공급사 등 유명인사(?)들에게

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현장 경험이었다.

예상치 못한 IMF 외환위기가 닥치자 국가는 외환 보유가 바닥이 났고 모든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여기저기서 기업인수합병 사태까지 발생했다. 필자가 공장장으로 재직했던 센트럴킨친 역시 IMF 외환위기 태풍의 공습을 피해 갈수는 없었다. 그 당시에는 강제적인 규제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선진국 기준으로 구축했던 친환경 냉동설비가 오히려 생산원가에 부담을 주어 원가절감 측면에서 값비싼 친환경 냉매를 값싼 냉매로 대체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의 특징은 본사에서 직접 투자해서 운영하는 직영점과 가맹점주들을 모집해서 개인이 가맹본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기탁하

고 표준화된 식자재와 운영매뉴얼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는 두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실하고 정직한 가맹본사의 '상생정신'이다. 가맹본사의 무리한 영업이익과 매출확대로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각종 혜택이 무시되거나 불공정거래 형태로 변질된다면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계약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며 가맹점주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외식업은 예상보다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업에 처음 입문하는 경우에는 자영업보다 검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고 '잘되겠지'라는 착시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막연한 기대감보다 어떤 가맹본사를 선택할 것인가부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YK, 이인석·박재완 영입... "DC센터 역량 강화"

(디지털콘텐츠)

"양질의 법률 서비스 균질하게 제공"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디지털콘텐츠센터(DC센터)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박재완 파트너변호사(38기)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DC센터장과 공정거래센터장을 겸임하는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이인석 변호사



박재완 변호사

평가받는다.

DC센터 부센터장은 말는 박재완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송무 전문 변호사로 근무했고 ▲항공기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 ▲기업 총수 관련 배임 사건 ▲공사대금 및 하자 관련 소송 사건 등 기업, 방위산업, 행정, 공공계약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다.

YK는 이인석 대표변호사와 박재완 변호사의 영입으로 DC센터 역량 강화에 나선다. DC센터는 전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YK는 DC센터 소속 10명의 변호사가 전국 27개의 분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중이다. 이후 DC센터 확대에 맞춰 이를 디지털 데이터화해 인공지능(AI)이 법률 관련 서면을 작성,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변호사들은 기존 서면 작업에 발생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고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영입을 통해 새롭게 발을 내딛는 DC센터의 업무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규춘 기자 ch9720@

대한항공

뉴욕 취항 45주년 맞아

대한항공이 미국 뉴욕 노선 취항 4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항공은 3월 29일(현지시간)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탑승객 대상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인천행 대한항공 KE082편 45번째 탑승수속 승객에게 인천~뉴욕 왕복 프레스티지 항공권 1매를 증정했다.

또 이날 KE082편 탑승객 전원에게 뉴욕 취항 45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한 예코백도 증정했다. 오는 4월 4일 뉴욕 맨해튼에서는 이진호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장, 현지 주요 인사 및 대리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1979년 3월 29일 서울~뉴욕 정기 여객편을 처음으로 띄웠다.

/양성운 기자

인사

- ◆유한양행 (신임) ◇대표이사 사장 △이영래(유한화학) ◇부사장 △김재훈(유한크로락스) (재신임) ◇대표이사 △박종현(유한크로락스) △김상철(유한메디카) △강덕현(와이즈메디)
- ◆동국제약 ◇부사장 △ETC사업본부 강종한 ◇전무이사 보 △R&D본부 박신정 △신제품개발실 유기웅 △개발기획실 이희자 △재무기획실 김홍기 △헬스케어Beauty사업부 합명진
- ◆일동홀딩스 ◇부장 승진 △김효섭 △이보라 △이성행
- ◆일동제약 ◇부장 승진 △김동섭 △김민주 △김승호 △김영권 △김영민 △김영민 △김유진 △박기철 △여기향 △오유진 △윤여성 △이종성 △장민욱 △최성우 △최원석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부장 승진 △이정윤
- ◆유니기획 ◇국장 승진 △윤윤오 ◇부장 승진 △이태제

-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판로정책과장 김현동
- ◆광주드림 ◇광주드림 △전남본부장 겸 선임기자 정진탄
- ◆시사플러스 △(주)보림산업·(주)보림 VINA 부회장 심일보 시사플러스 편집국장/대표
- ◆신영증권 ◇부사장 △WM/자산배분 총괄 김대일 ◇전무 △리서치센터 김학균 △헤리티지기술루션본부 오영표 △자산배분솔루션본부/Operation본부 천신영
- ◆메트라이프생명 ◇전무 △오피레이션(Operations) 담당 김수연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담당 김지은 △CPC 담당 조기상
- ◆㈜서한 ◇승진(상무) △이기용(soc본부) ◇승진(이사) △나영식(건축팀장)
- ◆NSP통신 ◇편집국 △편집국장·총괄 이사 박광선 △총괄부사장 류수운 △전무이사·주필 박광선 △정치경제 국장·

- 전국취재본부 총괄본부장 강은태
- ◆세종문화회관 ◇팀장급 △공연제작1팀장 김아림 △발레제작팀장 조해진 △공연장운영팀장 김지민
-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급 △선진원자로연구소장 조진영
- ◆한국애비비 ◇승진 △이사 서상덕 부장, 박찬일 부장, 김옥진 부장
- ◆KCTV제주방송 △경영본부장 김기정 △방송본부장 김석범
- ◆팬스타그룹 ◇이사대우 승진 △여객사업본부 전세크루즈팀 유다중
- ◆동신대학교 △입학처장 최찬현
- ◆우리금융캐피탈 ◇전무 승진 △리스크관리본부 이기홍 △기업금융본부 장창엽 △IB투자금융본부 김춘경 ◇상무 선임 △경영지원본부 주현중
- ◆신한라이프 ◇부사장 승진 △윤용지 원팀 팀장 박정우 △투자관리팀 팀장 최보형 ◇부사장 전보 △글로벌사업팀 팀장 최수성

기아

'진로투어' 참가자 모집

기아가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미래세대에게 첨단산업 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아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진로투어' 프로그램 참가자를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진로투어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기아가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기아인스파이어링 클래스'의 일환으로 글로벌 융복합 연구개발(R&D) 허브인 판교테크노밸리 주요 기업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판교테크노밸리 진로투어는 학급당 최대 30명까지 접수 가능하며 지방 및 농산어촌 지역 학교를 우선 선발한다. /양성운 기자